



베이징 공사장에 피어난 예술

아나운서 김자은의 예술에 대한 애티튜드는 조선의 골동을 모으던 한 부부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798 아트 페스티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녀가 만나고 온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인 마크가 그 결정적 부부의 아들이라는? 글과 사진/ 김자은(아나운서, 작가)
Photographed by Jiang Haif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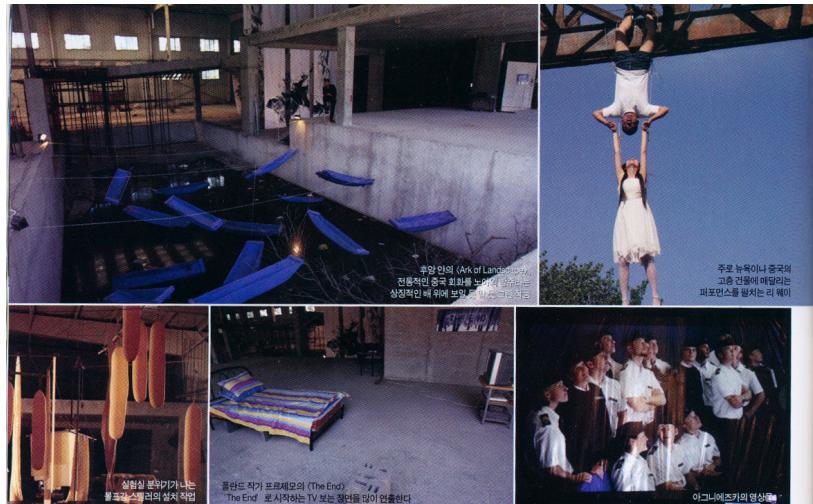
내 가 알아볼 때 일이나가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은 다 미모되 었을 것이다. 이제는 몇 줄로 요약 가능한 이 경험은 그러나, 미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의 태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한국인-스위스인 커플 부부가 평생 모은 조선의 골동들이 있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에 위치한 그들의 집에 걸려 있던 그들이 신유복과 금홍도의 것 아니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한국 고서화와 골동을 위한 미술관을 짓고 싶어 했고 한국의 전문가에게 방대한 슬라이드 자료를 주면서 감정 의지를 부탁했다. 당시 권위 있는 세 사람에게 의뢰한 결과 작품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자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스위스 할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미뭇거

리고 있자, 미리 짐작을 했었는지 아들이 먼저 말을 껴졌다. “다 위조된 작품이라 해도 어찌 한국은 스승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배우는 것과 한과 정이잖아. 거기에는 스승들의 혼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은 그 그림들로 인해 평생 행복했기에 여러분이 없으실텐데, 지금은 위조 전문 미술관에 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니까.”(웃음)

당시 그는 미술학도였고 곧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헝거필리(Marc Henggeler)였는데, 거의 20년 만에 맨해튼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뉴욕의 아트 큐레이터상을 받은 벌트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행기에 올랐다. 마오쩌뚱 시절 미사일 부품

(Song) 전을 기리한 마크와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오후 5시 어두워질 무렵 쟁비(Geff Gompertz)의 퍼모먼스가 펼쳐졌다. 이별소사에서 절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듯한 광경이 연출되었고 관객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었던 패포먼스들과 구별 없이 섞이는 장면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깊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관객으로 작가였기 때문이다. 한편 전시장 벽을 짹 매운 알프레도 마르티네스(Alfredo Martínez)의 거울 200m, 세로 15m의 드로잉 작품은 그대로 조립하면 실제 거울이 된다. 순하게 생긴 이 친구는 실제로 뉴욕 박람회에 2년 만 동안 수상했지만, 그 유명한 바스티아 작품을 부정한 힘의였다.(그의 위로 실력을 대단히 높았다.) 20미터가 넘는 드로잉을 실제로 조립해 박람회라도 한다면 또 한 번의 철강 신세계를 꾸며 놓지 못할 것 같다. 전시장에서 아래에 먹고 자는 통에 그를 감시하는 관객들은 그걸 보고 싶어하는 듯했다.

하는 궁금증이 바로 물을 칭한다.
여기 있는 더러운 물 을 헤우는 중국 작가 후상 앙(Хуан Ян)의 푸른 배가 공중부상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역시 중국의 리 웨이(Ли Уэй)는 전시장 및 광장에 그려진에 물을 베타웠다. 전시장 입구에는 스페인의 폐란 마틴(Fernan Martin)의 목조조각이 있는데, 원래 전시가 끝나면 그대 위 그물을 빼어내고 담수는 불로 선물로 전해온 원래의 용도를 찾았지만 그대 위에 두루 뒤집어 놓은 의식을 취하는데 중국 공안 때문에 이번에는 텔을 엄마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을 한데 모은 마드리드 열정이 눈부웠다.

“난 비록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지만, 이 전시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주려고 했어. 실제 미국 작가는 두 사람뿐이니까. *Surge*라는 타이틀이 의미하는 것, 즉 해저처럼 예술적 에너지가 빙빙 돌고, 한 번으로는 에너지가 충돌되면서 모이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던 거야. 가짜거나 둘러나는 관객들도 이 에너지의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장소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게 목표지. 갤러리들은 이를 익기 위해 안정된 10분의 애착작품을 짜이지만, 우리는 그걸 달라.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강조한 해설을 일으킬지도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



제조공장이었던 798 지대는 이제 미술渚들을 조망하고 있었다. 40~50개의 갤러리들이 있어서 다 보려면 한나절은 걸렸다. 5월인데도 베이징의 뜨거운 날씨는 모든 것을 진시조식은 것 같았다. 예술의 영광까지도 베이비비비해 보이는 것은 딱이 찍어놓은 듯한 작품 속에서 '미제'를 드러내는 바위들, 작가의 선동적 혐명 포스터형 작품이 오히려 신선했을 정도니까. 앙아도 안 되고, 키드도 안 되고, 현관만 받는 798 구내 송주당에서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다는 중국이온은 저 한 달 만에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그와 식사에서 한 뒤 그가 기획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스퀘어(Oriignality Square)로 향했다. 바깥에 'SURGE'라는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들어가기보다 먼저 공사를 하다 오래 방해당해 폐기 같았다. 임청난 높이로 천장에 걸린 대형 미술작품들 사이로 걸어나온다.

“처음 여기 도착해서 한 일은 쓰레기장을 차운 거야. 오프닝 날 새벽까지 치워서 이 정도야. 마지막으로 이곳을 사용했던 회사는 DHL이었는데, 계약이 끝난 뒤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 경찰자? 글쎄 난 사진으로 일단 이 공간을 보자마자 이곳이나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공간을 다 놔두지 말면 늘어진 거지.” 쟁쟁한 바다로 이어진다.

기를 끌어들이는 일도 쉽지 않았다. 프로젝트 설치 작품이 있었는데 도난의 우려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일하는지 감시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만 했어. 그게 중국이야.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중국을 막은 이유가 궁금했다. “뉴욕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 안을 관리업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꿈도 못 끊을 일이다. 하지만 벽과 천장 위의 리얼티들은 무너지 험하고, 벽과 열악하게 사는 하늘로 보이고 사람처럼 이런 장소에 진입을 위해 소진한 모든 에너지를 역시 예술의 일자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의 매력이고, 장소 특성(Site-specific) 예술의 특징 아니겠나? 그리고 모두 20억 원의 작품을 뉴욕에서 더 높여 키고, 경쟁하고 높여놓지만 여기에서 생활하고 노예로 봉하여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문화의 물질을 잘라내서, 작품 속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부어리울때마다 다른 기록하고 생각해.”

한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미술 시장 역시 미쳐가고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의 파워를 실감하는지 물었다.

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아파하고 대처하기에 고민이지만, 여기 와보니까 중국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유연하다는 거야. 예술이 완전 토막나고 썰리고다

서울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는 기자님, 뉴욕에서 일하고 못 내는 것들이 베이징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바로 그것이 장기고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전시가 바로 그것이 전시야. 더 이상 미술에는 중심도 경계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전시의 중심 개념이에요. 근데 하늘이면 그걸 천상적 소재로 풍을 불린 히어우미국에 있는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작품 활동에 때문에 이곳에 오는데 같은 문장은 작품 활동하는 공간,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대로는 비용들을 더 이상 누릴 예상에는 감당할 수 없기로, 실제로 누워서 이스트풀스를 주방에 만에 예술 활동하는 수준을 할 수 있어요. 주중에는 예술하기 위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중국은 그 런 면에서 보면 매우 매력적이야. 작업할 시간을 일단 확보할 수 있지. 제작 비용도 층 층. 하지만 다른 문제는 문화재들이 아니야. 중국 강한 문화 분위기 주는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국민 차원에서 예술 기금으로도 변화하고 보니까, 그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렇게 크게 변화해 하는 엄청난 잣대들이 작품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는 거야. 물론 여기 시도에서 이미 상상과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막상 사야마 아일리나 중국 미술 시장의 파워가 굉장히 성장했는지, 그리고는 지 북적할 수 있어. 유동의 소호가 그렇게 되는 데 20년 걸렸는지 중국에 서는 3~4년 안에 이루어진 셈이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 아직까지는 않고, 예술 활동 촉진하고 미친 작품을 해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것. 시장과 관계없이 판수 있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계속 환경적으로 나온다니까. 그것이 시구현의 '시장충성'이라는 작품이나 예술 활동에 변화시키는 '시구현'은 예술의 새로운 환경이야.